

아침 인문학 강좌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성공이 갖는 의미

임진모(음악평론가)
jjinmoo@izm.co.kr

1. 서론
2. 빌보드를 손에 넣다
3. 글로벌 성공의 요인
4. 열정이란 드높은 가치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성공이 갖는 의미

1. 서론

그 힙합 아이돌들 가운데 지금 당장 최고는 방탄소년단이다. 언론은 그들의 놀라운 성공의 요인을 분석하느라 열을 올리지만 첫 번째는 힙합 세례가 낳은 긍정적 효과를 빼 놓을 수 없다. 힙합 측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리더 알엠(RM)을 포함해 일곱 전사 모두 작사 작곡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아티스트의 기본인 음악적 자주와 자율과 관련해서 그들을 돋보이게 만든다. 보이그룹이 아닌 아티스트 그룹, 아이돌이지만 아이돌 같지 않은 것이다. 멤버 스스로 셀프 프로듀싱의 역량을 지녔다면 기존 아이돌에게 어쩔 수 없이 부착된 공산(工産)품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본에 의한 조작 마케팅, 부풀리기 이미지 홍보과는 거리가 먼(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지만) 힙합이라는 시작점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빚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작곡가 방시혁의 기획사(빅히트) 소속임에도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방시혁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만든다!”는 유효한 인식을 가져왔다. 자연스럽게 신뢰가 창출된다.

2. 빌보드를 손에 넣다

힙합의 커리어는 멤버들이 써낸 가사의 지향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멤버 누구도 공식적으로 세월호를 연관하지 않았지만 다들 그렇게 여기고 있는 스매시 히트 ‘봄날’에서부터 그들의 노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저항, 반항, 아우성을 상술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힙합의 저항성을 정체로 삼아 그들은 세태를 비판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젊음을 위로한다. 또래들의 정서가 가감 없이 펼쳐지기에 청년세대는 열광한다.

많은 음악팬들을 방탄소년단으로 옮기게 해준 곡으로 평가되는 멤버 슈가의 믹스테이프 ‘마지막’은 지금을 사는 젊음이 겪는 우울 불안 고통의 정서가 적나라하게 배열된다.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다. ‘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 그 이면에/ 나약한 자신이 서 있어 조금 위험해/ 우울증 강박 때때로 다시금 도져/ hell no 어찌면 그게 내 본 모습일 지도 몰라...’

빌보드는 2017년 ‘팝이 글로벌로 향한 해’라는 연말특집 기사를 쓰면서 방탄소년단을 사회의식을 표현하는(socially conscious) 그룹으로 정의했다. ‘Yeah 누가 내 수저 더럽대/

4 아침 인문학 강좌

I don't care 마이크 잡음 금수저 여럿 꽤..'(Mic Drop) '난 욕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며 우릴 싹 주식처럼 매도해..'(절어), '열일 해서 번 나의
pay/ 전부 다 내 배에/ 티끌 모아 티끌 탕진잼 다 지불해/ 내버려둬 과소비 해버려
도..'(고민보다 Go)

그들은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가 된 '흙수저'로 불린다. 상층보다 하층을 응원하고 기쁨
보다 슬픔에 감정을 소비하는 대중의 공감지수가 여기서 상승한다. 환상 아닌 '스토리'
가 있다. 외국 팬들도 가사해석이 어렵지만 BTS의 가사가 현실비판적임을 인지하고 있
다고 한다. 방탄소년단의 북미 프로모션을 맡고 있는 예시 개지트는 이렇게 말했다. "재
능은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글로벌 성공의 요인

개지트의 말 하나를 더 빌린다. "멤버들 서로서로 보완해주는 구성이다.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팬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춤 하나를 추더라도
복수로 구성된 그룹이 솔로보다는 현란한 일체감을 전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
다. 그래도 멤버 하나하나가 다른 동료보다 더 돋보이고 싶은 욕구, 개별적 인정욕망은
당연하다. 인지상정. 하지만 그룹은 결속력이 생명이다.

상호보완의 우정이 없으면 그들은 글로벌 스타로 비상하기 전의 45년, 이른바 흙수저
시기를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버티기가 키워드가 된 세상에서 그룹으로 버티려면 서로
를 믿고 감싸는 '그루핑'은 필수적이다. 가뜩이나 자기애와 자존감으로 성장한 지금의
젊음은 결속력 측면에서 취약한 점을 드러낸다. 방탄소년단 클래스는 자작(自作) 능력과
더불어 이러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자를 감싸며 둥근 원을 그려내는 이 '케미'의 산
물이다.

멤버들끼리만 화학적 결합이 아니다. 기획사와도 궁합이 제대로 맞았다. 회사는 멤버들
에게 음악적 자유를 보장했고 방탄소년단은 소속사의 비전에 충분히 부합했다. 선배가
수 김수철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로 나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오래 준비한 팀이다. 회사
와 멤버와의 합(合)이 만들어낸 일종의 '작품'이란 찬사를 보내고 싶다."

4. 열정이란 드높은 가치

방탄소년단의 미학이 도덕적이라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열정'의 가치
에서 정점을 찍는다. '피 땀 눈물'이라는 노래 그 자체다. 애초 힙합 그룹에서 아이돌로
조정국면에 돌입했을 때, 다시 말하면 댄스역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을 때 그들은 하

루 12~13시간 댄스연습에 몰입했다고 한다. 기획사 관계자는 “어마어마한 연습량을 소화한다.”고 말했다.

무명시절 독일 함부르크 클럽에서 하루 10시간 연습한 비틀스와 별 다를 게 없다. 이러한 성실하고 지속적인 열정에 의해 서구인도 깜짝 놀라게 하는 ‘칼군무’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방시혁 대표가 제1의 승인(勝因)으로 인정하는 소셜미디어(SNS)의 힘도 크다. 사진과 영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팬들의 성원이 조직적으로 가동하고, 음악의 소비를 민주화한 스트리밍의 도움이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BTS의 성공은 먼저 꿈, 열정, 신념이라는 변하지 않는 청춘가치의 결실이다. 대중적 파괴력을 낳는 재능에다 감동을 창출하는 이러한 자세가 결합했으니 작품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진정성’, ‘진심 마케팅’과 같은 찬탄 형 수식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능이 넘치더라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애써도 예술적 실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음악계의 속설을 실감한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당연하다.